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조원용집사 출석

주제: 제목 : 절대적인 이유 성경:요한복음 10장1-5절

1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 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2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3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4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 라오되

5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 하느니라 (요10:1-5)

유달리 기독교는 절대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타종교와 더불어 상대적인 취급을 당하기를 거부한다.

그래서 타종교로부터 독선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절대성은 기독교의 정체성이다. 이 절대성은 결코 포기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종교에는 각자의 세계관과 가치관, 그리고 그에 따른 사관이 있다.

그런데 왜 유독 기독교만 절대성을 강조하는가?

그것은 오직 기독교만 신성에 대한 독특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분이시고 그 나머지는 모두 상대적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관이다.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 라는 뜻이다.

은 우주의 그 무엇도 하나님과 견줄 수 없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유일한 주권자시며, 영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가장 의로우시며, 선하시며, 사랑 그 자체이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며, 진리 그 자체이시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어떤 사상이나 행위도 하나님과 견줄 수 없다.

아무리 그것이 크고 위대하다고 해도, 누군가 초인적인 업적을 남겼다 해도, 가장 훌륭하고 의로운 일을 행했다해도 결코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과 그 업적과 의와는 비교할 수 없다.

온 우주에 하나님보다 더 비중있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당연히 온 우주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신성은 책으로 기록되거나 말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형상으로 묘사되거나 어떤 사상이나 행동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는 철저하게 우상숭배와 율법주의를 멀리하게 된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마치 떠도는 먼지처럼 자기 중심에 구심점을 잃게 된다. 방황하게 된다.

이 방황이 당황스럽기 때문에 자기 중심에 우상을 만들어 놓든지, 어떤 사상을 신봉하든지 자기 스스로가 만든 양심의 법을 따라 행동하게 된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신성이 있다고 믿는다. 어떤 사상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신성이 있다고 믿는다.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신성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기독교 이외의 모든 타 종교는 이 신성을 특정 물건이나 사람이나 사상이나 말이나 행동에 담아두려는 어리석음을 범한다. 그러나 신성이 피조물에 담겨지는 그 순간 그것은 우상이나 율법주의가 되어 사람의 자유와 행동과 사상과 문화를 옳아매게 된다. 이처럼 거

깃신성에 붙잡힌 모든 사람들은 저당잡힌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모든 인생 또한 신성을 담지하고 있지 않다. 다만 그 신성에 반응할 뿐이다. 그리고 그 신성을 영접한다. 그러나 그 신성 자체가 가장 강력한 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은 마치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듯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된다.

신성에 대한 반응은 이렇다. 남극의 펭귄이 자기 엄마 펭귄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반응하듯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주파수와 공명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속에서 동감이 된다.

처음에는 큰 소리에 대충 동감이 되지만, 계속해서 교감이 일어나면서 분별력이 더 발달하게 되고 더 미세한 주파수까지 동감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서 누구의 음성이 목자의 음성인지 거짓 목자의 음성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

기독교가 절대적인 이유는 단순하다. 하나님은 신격을 지닌 인격으로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인형이 아니다. 하나님과 나는 교제가 가능하다.

이것들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아름다운 풍경화를 그려 놓으셨다. 예수님은 목자요 우리는 그의 양이다. 푸른 초장과 시냇물이 흐르고, 목자와 양떼가 있으며, 해가 지면 목자는 양떼를 이끌고 양의 우리로 들어간다. 문지기는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문을 열어 준다.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목자를 따라 들어간다.

십지어는 문도 예수님이시다. 모든 양들은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

서 우리에게 들어간다.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모든 자들은 도둑들이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희생한다. 그러나 샅군은 목자가 아니다. 이리가 달려들면 제가 먼저 살려고 도망한다.

기독교는 신성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심지어 그 어떤 것에도 신성을 부여하지 않는다. 왜냐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신성을 만날 수 있다. 왜냐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다. 그리고 그래야 진리이고 생명이다. 아멘.

<찬양예배>

주제: *healing & Spiritual Warfare*

제목: 그리 아니하실찌라도 말씀: 다니엘 3장8-18절

8 그 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아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9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10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11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12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다

13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14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15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줄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16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7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단

3:8-18)

영적 전쟁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지 아니다.

12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엡6:12)

우리의 싸움은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